

## 성인기로의 이행을 통해 본 저출생 시대 청년층의 교차적 불평등\*

최진희\*\*

### 초 록

본 연구는 청년층이 '저출생 문제'의 당사자로 호명되는 맥락에서 출산을 넘어 성인기 이행으로, 현시점의 청년 문제를 넘어 청년기의 역사적 성격 변화로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여 지난 30년간 20~30대의 성인기로의 이행의 변화에 대한 비교를 통해 현재 청년층의 성인기 이행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1990년, 2005년, 2020년 세 시기의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를 비교하였고, 분석방법은 Modell, Furstenberg & Hershberg(1976)의 고전적인 생애과정 분석법과 엔트로피 지수를 활용한 Fussell(2005)의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의 교육 경험은 남성과 차이가 없어졌으나 취업 후 노동경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 여성에게 취업과 가족형성이 부정적, 갈등적 관계라는 것은 지난 30년간 변함이 없었다. 그럼에도 졸업 후 취업 경험 없이 가족형성을 하든 취업을 중단하고 가족형성을 하든 가족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여성적' 이행 경로는 감소해 왔다. 성인기로의 이행을 규정하는 계층의 영향은 커져서 하위계층은 청년기의 시작부터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증가했고, 상위계층은 경력형성 기간이 장기화된 만큼 가족형성 시점이 늦어졌으나 더 많은 비율이 압축적으로 결혼과 부모됨으로 이행했다. 청년기의 출발점에서부터 형성된 계층에 따른 기회구조의 격차와 젠더에 따른 기회구조의 격차가 중첩된 변별적 영향의 누적된 결과는 현재 청년층의 가족형성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다. 현재 청년층의 낮은 가족형성 비율에 따른 성인기 이행 경로의 분화가 단순히 가족형성 시점이 30대 이후로 늦춰지는 이행기의 연장일지, 청년기와 성인기의 경계 자체를 흐리며 성인됨의 의미를 새롭게 재구성해 갈 시발점일지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

주제어 : 성인기로의 이행, 교차적 불평등, 젠더 계층, 저출생, 인구주택총조사

\* 이 연구는 2024년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을 발전시킨 것이다. 세심한 논평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dogear20@kwidimail.re.kr)

## I. 문제제기

한국에서 저출생 현상이 국가 수준에서 대응해야 할 정책적 의제로 부상한 것은 2천년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가 경제성장 둔화, 부양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는 위기 담론이 확산되면서부터였다. 특히 2005년 합계출산율 1.08명이라는 수치는 그동안의 위기 담론을 직관적으로 확인시켜 주며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기본계획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20년간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각계의 다양한 진단과 대책들이 쏟아지면서 자녀양육 지원, 일·가정양립 지원뿐만 아니라 인공임신중절 규제, 청소년한부모 지원, 초등 입학연령 하향 개편 등까지 저출산 대책의 목록을 채웠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 만혼·비혼에 따른 결혼율 하락이 저출산 추세를 심화시킨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유자녀 가구, 맞벌이 부부, 기혼 여성, 워킹맘뿐만 아니라 미혼 남녀, 즉 청년층까지 저출산 대책의 대상 범위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청년층이 ‘저출산 문제’의 당사자 내지는 책임자로 호명되는 맥락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시점인 현재 청년들의 출산 행위가 정책적 의제로 부상한 것과 관련하여 출산을 넘어 성인기 이행으로, 현시점의 청년 문제를 넘어 청년기의 역사적 성격 변화로 인식의 지평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해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발전시키기 위한 출발점으로,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30년간 20~30대의 성인기로의 이행(transition to adulthood, 이하 성인기 이행)의 변화에 대한 역사적 비교를 통해 현재 청년층의 성인기 이행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90년, 2005년, 2020년 세 시기의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자료를 비교하였고, 분석방법은 Modell, Furstenberg & Hershberg(1976)의 고전적인 생애과정 분석법과 엔트로피 지수를 활용한 Fussell(2005)의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질문 및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기 이행을 구성하는 졸업, 취업, 결혼, 부모됨(parenthood) 각 사건들은 얼마나 보편적으로 경험(prevalence)되고, 어떤 시기적 특성(timing, spread)을 보이며 변화해 왔는가? 둘째, 졸업과 취업, 취업과 결혼, 취업과 부모됨, 결혼과 부모됨과 같은 두 이행 간의 관계, 즉 동시성(age-congruity)과 통합성(integration)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셋째, 네 사건을 모두 포괄하는 전체 성인기 이행의 특징은 어떻게 변화해 왔고, 경력형성(졸업, 취업)과 가족형성(결혼, 부모됨) 중 어느 영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는가? 특히, 위의 모든 분석내용은 젠더와 계층의 교차성에 따른 차이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본 장에서는 제도주의와 국가 간 비교 관점에서 한국의 성인기 이행의 조건을 짚어보고, 성인기 이행을 다룬 국내 선행연구들을 검토했다.

### 1. 이론적 논의

21세기 생애과정, 특히 성인기 이행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20세기에 구조화, 제도화, 표준화되어 온 근대적 삶의 모습이 그와 구별되는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경제 호황과 복지국가 발전이 함께한 전후 질서(postwar order) 속에서 교육, 노동시장, 사회보장의 제도화에 따라 20세기 근대적 생애과정은 보편성, 동질성, 연속성 등을 그 특징으로 했다. 성인기 이행도 졸업-취업-결혼-출산의 폐쇄적인 단계적 순서화가 지배적인 양상으로 굳어져 왔다.

사실 역사적으로 매우 예외적인 시기에 형성된 ‘표준적’ 생애과정의 구조는 20세기 후반 세계화, 탈산업화, 경제위기와 복지국가 개혁의 맥락에서 변화의 압력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그전과 구별되는 새로운 생애과정의 특징은 특정 사건의 보편적인 발생(prevalence), 특정 연령(age variance)에서의 압축적인 이행(duration variance), 사건들 간의 의존성(inter-event dependency)과 순서의 단일성(sequence uniformity)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점진적이기보다는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Brükner & Mayer, 2005: 35). 성인기 이행과 관련해서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역할 중첩(overlap), 연령구범의 약화(decompression)에 따른 만혼/만산, 재교육/재합가(renesting)/이혼과 같은 역할 가역성(reversibility), NEET/비혼/무자녀와 같이 성인기 이행을 구성하는 사건 그 자체의 부재를 예로 들 수 있다(Macmillan, 2005: 17).

하지만 이 같은 변화에 대해 ‘탈표준화’라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관찰되는 하나의 공통적인 경향으로 서술하는 것을 넘어서, 성인기 이행과 관련된 각국의 제도들을 통해 보다 인과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뒤따랐다. 즉 Mills와 Blossfeld(2005)는 세계화로 통칭되는 거시구조적 변화가 낳은 불확실성이 교육, 고용관계, 복지, 가족 관련 제도적 필터를 거치면서 국가별로 상이한 성인기 이행의 조건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유럽 국가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관대한 사회

안전망이 세계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완충 장치의 역할을 하는 덕분에 이 행기 청년들은 불안정 고용, 실업 등을 경험하더라도 파트너십의 형성이나 부모가 되는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한편, 영미권 국가들의 학교 교육 내용은 일반적인 소양교육 중심이고 직업 훈련은 입사 후 기업 내(on-the-job)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적의 일자리를 찾기까지 오래 걸리고 직업 이동이 잦은 편이다. 그뿐 아니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보호만이 제공되는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광범위한 청년층은 불평등과 빈곤을 대가로 비교적 쉽게 고용되지만 그만큼 쉽게 해고되는(last in first out, hire and fire)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과 같은 대륙 유럽의 경우 교육·훈련과 직업 간 긴밀한 연계, 표준화된 국가자격제도 덕분에 초기 노동시장 이행이 원활한 편이지만, 노동시장 내부자를 보호하는 고용 및 복지제도의 특성상 청년, 여성 등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을 시도하거나 내부노동시장 진입에 성공하지 못한 일부 집단에게 성인지 이행의 불확실성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Mills, Blossfeld & Klijzing, 2005).

특히 가족제도와 젠더레짐의 측면에서 북유럽, 영미권 국가들에서는 세계화에 따른 불확실성의 영향이 남녀 간 큰 차이가 없는 데 비해 대륙유럽, 가족주의 국가들의 경우 젠더에 따른 영향의 차이가 큰 편이다. 즉 남성생계부양자형 젠더레짐 하에서 불확실한 지위에 있는 청년 남성은 가족형성 기회에 보다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면, 여성의 경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가족 지향적 선택을 하거나 교육·고용과 가족형성을 병행하기 어려운 제약 속에서 경력 지향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멕시코 등 가족주의 국가들에서 청년 여성의 기회는 더욱 줄어들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매우 낮고, 독자적인 경력을 추구하고자 할 때 가족 역할과 심한 갈등을 겪게 된다. 그 결과는 가족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의 저출생, 확대가족 해체라는 역설이다(Mills & Blossfeld, 2005; Mills, Blossfeld & Klijzing, 2005).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가족주의의 역설적 결과는 성인지 이행의 곤란을 넘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압축적인 근대성의 복합적 결과에 국가의 가족화 정책이 더해지면서 동아시아 사회에서 결혼은 친밀성보다는 의무와 책임의 제도로써만 존재할 뿐이고, 가족관계는 개인들에게 자원이 되기보다는 위협으로 작용하면서 위험회피적(risk-averse) 개인화가 진행되었다. 특히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가족 관련 규범이 가장 강력한 반면, 혹은 그렇기 때문에 2차 인구변천의 서구적 특징인 비혼동거·혼외출산과 같은 유연한 결합은 확산되지 않은 채 이

혼율이 매우 높고, 출산율도 최저(lowest-low) 수준을 넘어 초저(ultra-low) 수준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Ochiai, 2011).

## 2. 선행연구 검토

### 1) 청년층의 이행 경험의 차이와 생애과정의 표준화

성인기 이행에 관한 초기 선행연구(남춘호·남궁명희, 2012; 문혜진, 2010)는 생애과정 패러다임을 한국 사례에 적용하고자 한 시도로서, 생애과정을 구성하는 여러 단계 중 역동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한 시기로서 미성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시기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의 연령 범위를 청년 연령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1930-79년생(문혜진, 2010), 15-49세(남춘호·남궁명희, 2012)로 비교적 넓게 설정한 것도 전반적인 생애과정의 구조적 변화를 파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두 연구의 공통적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생애과정은 대체로 1970-90대 사이에 표준화되었고, 1990년대부터 탈표준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으로 1990년대 말 이후 청년실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이행 지체, 즉 ‘청년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끌면서 이에 대응한 정책적 관심에서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은기수 외, 2011; 이병희 외, 2010; 장미혜 외, 2011)가 이루어졌다. 우선 이병희 외(2010)는 성인기 이행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1960년대 초 출생코호트에 비해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대학진학률이 현저히 증가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남녀 모두 결혼과 출산 시점은 과거보다 늦어졌고, 취업 시점은 남성의 경우 늦춰진 것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지만 여성의 경우 대학진학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25세일 때 취업 비율이 과거보다는 증가했다.

다음의 두 연구는 집단 특성에 따른 경험의 차이에 주목하여 계층과 젠더에 따라 성인기 이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루었다. 은기수 외(2011)는 순차적 이행이 불가능하여 순서가 뒤죽박죽일 수밖에 없고 열악한 조건으로 이행 과정이 평탄할 수 없는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을 ‘울퉁불퉁한 이행’으로 특징짓고, 교육→취업→결혼→출산으로 상정되는 순차적 이행 자체가 매우 중산층 중심적인 모델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즉 취약위기계층은 성인기 이행 이전에 이미 생계부양 노동으로 내몰리면서 학업과 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 구속에 처하거나 이행의 유예기가 없기 때문에 취업이나 미래를 준비할 기회도 가질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수급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흔적이 남지 않

는 임시직으로 전전하는 ‘유령노동’은 이들에 대한 차별을 더욱 강화하고,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장미혜 외(2011)는 성인기 이행 전략의 젠더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취업 전략의 경우 남성은 ‘군 입대’라는 공식적 휴지기를 통해 경쟁적인 노동시장과 단절되어 제대 후의 취업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대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화의 경향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은 경쟁적인 노동시장과 계속 연결되어 스펙 쌓기와 자기계발을 추구한다. 구직과정에서 기업의 여성인력 기피 경향과 용모 중심주의를 경험하며 ‘나이 늙’에 대한 불안과 압력을 더 많이 느끼고, 외모 관리에 열중한다. 결혼 전략의 경우 남성은 결혼을 통한 안정된 삶을 기대하며, 취업과 결혼이라는 두 가지 욕망이 같은 방향을 향하며 충돌하지 않는다. 반면 여성은 이 두 가지 욕망이 합치되지 않는데, 결혼시장에서 여성의 높은 학력과 지위는 저평가되고 여성의 친밀성 형성 욕구와 경력 추구 욕구는 충돌한다. 즉 여성의 취업과 결혼 이행 전략을 특징짓는 키워드는 ‘지연’, ‘회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소극적·부정적 대응 전략은 청년 여성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책연구들은 ‘청년 실업’에서 ‘성인기 이행’으로 청년 문제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고 집단별 특성에 따른 경험의 차이에 주목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기존의 표준적 생애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치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장미혜 외(2011)는 성인기 이행 유형을 ‘이행시도형, 혼란적 이행형, 이행지체형’으로 구분하면서, 이행시도형에 대해서는 “청년 본인이 이행 과정을 주도한다”거나 “시행착오를 겪어도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는 등의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데 반해, 나머지 두 유형에 대해서는 “다른 길을 걷다 돌아오는”, “뒤엉킨” 과정이라거나 “방향성과 목표 상실”, “무기력” 등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것이 문제적인 이유는 이 연구들이 제안하고 있는 정책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책의 목표가 표준적 생애과정의 복원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성인기 이행을 다루는 정책연구는 ‘표준적 생애과정의 복원, 성인기 이행의 원활화’를 성급하게 제안하기보다는 유동하는 생애과정 속에서 청년들의 경험과 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다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 2) 청년층의 교차적 불평등과 청년담론의 재구성

마지막으로 살펴볼 성인기 이행에 관한 선행연구(김영·황정미, 2013; 김혜경·이순미, 2012; 이순미, 2014; 이순미, 2017)는 기존의 청년담론을 비판적

으로 재구성하는 한편, 후기 근대 혹은 탈근대적 생애과정의 재구조화라는 맥락에서 성인기 이행을 다루고, 젠더와 계층 간 교차적 불평등에 주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혜경·이순미(2012)는 청년실업이 곧 대졸실업으로 등치되는 것과 같은 청년담론의 물계층성을 비판하면서, 젠더와 교육수준이 교차하는 집단별 특성에 따라 성인기 이행이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베이비부머 세대에서 확연히 나타났던 성인기 이행의 제도화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점차 동요하기 시작하여,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성차, 학력차가 심화되었는데, 특히 여성내부의 교육수준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선 취업, 후 결혼’이라는 이행 순서가 고졸이하 여성의 경우 1980년대 말부터 역전되어 23.4세에 결혼하여 34.1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했다. 이것은 대졸 여성이 22.8세에 교육을 마치고 24.9세에 취업을 하는 것과 대조를 이뤘다. 결국 경제위기 이후 성인기 이행의 변화는 자율적 선택의 폭과 자원이 상대적으로 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학력 여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소위 ‘취직’이라는 신전통주의적 성격의 재귀속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김영·황정미(2013)는 후기근대적 생애과정의 다양성, 선택 가능성의 확대로 비춰지는 성인기 이행의 변화가 실상은 생애과정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강제된 선택을 정당화(“인지적 속임수”)하는 것임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청년층의 교육에서 취업으로의 이행과정은 직선적인 순행이기보다는 현실적인 조건에 따라 취업과 교육 훈련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요요 이행’을 보여주었다. 요요처럼 앞뒤로 이동하는 시점이나 조건이, 출신가족의 계층, 학력자본, 거주지역, 성별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상황에서 이행은 파편화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청년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선택 일대기’로 서사화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선택은 실상은 부족한 자원, 사회 제도 간 모순을 마주했을 때 ‘혼자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해야 하는(do-it-yourself)’ 자원 결핍의 위기 상황에 더 가까웠다. 청년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심리적으로 고립되는 가운데 매우 사적이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청년들을 낚오자나 패배자로 간주하고 표준적 이행 경로로의 복귀만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일면적이며, 취업 가능성이나 고용구조에 편중된 접근을 넘어 청년들의 주관적 서사, 문화적 열망, 일상의 구성과 관계망 등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순미(2014)는 젠더와 계층 간 교차적 불평등에 따른 탈근대적 생애과정의 재구조화를 개인화 현상의 맥락에서 해석하였다. 성인기 이행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 참여가 보편화된 여성들을 중심으로 나타났지만, 미혼 시기 전반

적인 탈성별화는 기혼 시기가 되면 고학력 여성을 중심으로만 유지되었다. 노동중심적이고 성별성을 내재한 생애과정의 근대성은 고학력 남성을 중심으로 지속된 반면, 저학력 남성의 경우 가족 이행에서 불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개인화의 맥락에서 보면, 고학력 남성의 생애과정이 남성생계부양자 규범에 충실한 가족화의 연장이라면, 여성들과 저학력 남성의 경우 가족을 동반한 개인화라고 볼 수 있다. 고학력 여성에게 가족을 동반한 개인화는 성찰적 개인화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데 반해, 저학력 남성에게는 파트너십 형성의 어려움이, 저학력 여성에게는 경제적 독립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개인화의 위험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순미(2017)는 거주형태 배열분석을 통해 청년층의 의존/독립에 대한 이분법적 설명(취업=독립, 부모와 동거=의존)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한다. 분석 결과, 남성은 '부모동거형', 여성은 '핵가족형'이 각각 50%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서 남성은 부모와, 여성은 배우자 남성과의 결합에 의지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여성 '핵가족형'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족배경을 특징으로 하고, 집단 내부가 상당히 동질적이어서 여성에게 결혼은 계급적인 현상임을 시사했다. '부모동거형' 남성의 경우 절반 정도가 일반적 의존이 아닌 다양한 맥락에서 부모와의 관계성이 구성될 만한 가능성이 있었던 것에 반해, 여성의 경우에는 부모 의존 유형이 지배적이었다. 결혼이 여전히 여성들에게 유일한 정상성의 경로로 강제되는 상황에서 '핵가족형'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들은 특히 취약한 집단일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 취약성은 노동과 가족 밖에 있는 탈근대적 청년기 경로의 원인인 동시에 그런 경로를 '선택'한 것에 부과되는 사회적 낙인의 결과이기도 했다. 결국 결혼이 부모에 대한 의존을 대신하면서 여성에게 가족주의적 청년기 연장은 결혼 중심, 남성 중심의 삶에 균열을 내기보다는 결혼 중심적 생애모델의 잠정적 유예에 그칠 가능성이 컸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는 청년층의 성인기 이행을 논의할 때 '순차적 이행', '독립' 등에 따라붙는 규범성과 젠더 중립성을 해체하면서, 성인기 이행의 불평등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었다. 하지만 가족주의의 탈근대적 재편의 맥락에서 개인주의화의 한국적 특성을 가늠하는 것이 주된 문제의식이어서 가구부양형태와 거주형태를 중심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성인기 이행 중 출산이라는 재생산 영역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성인기 이행을 거치면 확대되는 불평등의 누적적 효과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덜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재생산(장경섭, 2018)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저출생 맥락에서 성인기 이행을 다루는 본 연구는 생산 영역의 위험

이 재생산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면서(spill-over) 무엇보다 청년층의 가족형성 영역에서 누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는 시각에서, 형식적 젠더 불평등의 약화와 초기 청년기 계층의 규정력 강화라는 교차적 불평등의 복합적 영향에 초점을 맞춰 최근 청년층의 성인기 이행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는 주로 센서스자료와 패널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자는 사회인구학적 행위의 역사적 추세 및 포괄적 패턴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자료이지만 횡단자료로서 인과적 분석을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후자는 시계열적 변화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성인기 이행 과정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자료이지만 출산과 같은 특정 사건의 경우 각 차수의 사례 수가 불충분하여 10년 이상의 차수를 통합할 필요가 있고, 분석 범주를 세분화하는 경우 분석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최선영·함선유·권영지, 2023: 69-70). 본 연구의 관심에 따라 분석대상의 연령 범위를 20~39세로 1차적으로 제한하고 젠더와 계층의 교차성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집단을 2차적으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분석모형을 설계할 경우에도 패널 자료는 일부 집단의 표본 수가 충분히 크지 않아서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sup>1)</sup> 센서스자료를 이용한 총량적 분석과 패널자료를 이용한 미시적 분석은 상호보완적으로 교차검증(cross-validation)되어야 성인기 이행 과정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선 총량적 수준에서 성인기 이행의 역사적·포괄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대규모 표본을 제공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1990년, 2005년, 2020년 자료(2% 표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 수는 23~29만 명 정도의 규모이다(〈표 4〉).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한 선행연구는 1970~2005년을 다루는 남춘호·남궁명희(2012)가 유일하여, 최신 기간에 대한 분석은 공백으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1) 김혜경·이순미(2012: 53)는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분석 모형을 설계했는데, 전체 사례 수는 각 시기별로 2~3천 명 정도의 규모였고 젠더와 학력 계층의 교차성에 따라 집단을 구분했을 때 가장 적은 사례 수는 154명이었다.

횡단자료로 성인기 이행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특정 시점(t)의 연령별(20세, 21세, ... 38세, 39세) 상태를 각 년도(t, t+1, t+2, ...)의 상태 변화로 간주하는 가상 코호트 분석의 논리(synthetic cohort approach)에 따라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유사 패널자료로 분석(pseudo-panel approach)하였다(남춘호·남궁명희, 2012: 101; 오진호, 2018: 91). 예를 들면, <표 1>은 2020년 청년층의 연령별 결혼율인데, 현재 30세(t)의 1년 후 결혼율은 현재 31세(t+1)의 그것과 같다고 간주하여, 청년층의 7.2%(38.5-31.3)가 30세와 31세 사이에 결혼을 한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표 1> 2020년 청년층의 연령별 결혼 이행률

(단위: %)

| 연령 | 결혼 이행 | 연령 | 결혼 이행 |
|----|-------|----|-------|
| 20 | 0.7   | 30 | 31.3  |
| 21 | 1.2   | 31 | 38.5  |
| 22 | 1.4   | 32 | 45.8  |
| 23 | 2.3   | 33 | 52.2  |
| 24 | 3.1   | 34 | 56.8  |
| 25 | 4.4   | 35 | 61.9  |
| 26 | 7.6   | 36 | 66.0  |
| 27 | 11.4  | 37 | 69.8  |
| 28 | 17.3  | 38 | 72.8  |
| 29 | 23.4  | 39 | 74.3  |

##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생애과정에서 성인됨으로의 이행을 구성하는 여러 사건들 중 졸업, 취업, 결혼, 부모됨이라는 4가지 변수를 통해 성인기 이행을 측정한다. 각 변수의 구체적인 코딩 방식을 살펴보면, 졸업 변수는 교육정도가 무학(‘받지 않았음’)이거나 교육상태가 ‘재학, 수료, 휴학, 중퇴’인 경우를 제외하고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교육정도와 무관하게 교육상태가 ‘졸업’인 경우이다. 유의할 점은 1990년에는 대학 교육이 주류가 아니었고 최근으로 올수록 고학력화, 졸업 유예, 재교육 등이 증가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코딩되더라도 시기에 따라 그 의미가 상이할 수 있다. 즉 1990년에 교육 이행(졸업)은 고졸 이하가 다수이고 교육 미이행은 무학<sup>2)</sup>이나 중퇴인 경우라면, 2020년에 전자는 대졸이 다수이고 후자는 재학, 수료, 휴학일 가능성이 높다.

〈표 2〉 성인기 이행 사건별 변수 코딩

| 변수  | 조사문항             | 이행   | 미이행            |
|-----|------------------|--|----------------|
| 졸업  | 교육정도             | 초·중·고등학교, 대학교(2·3년제, 4년제 이상), 대학원 석사·박사 과정 | 받지 않았음         |
|     | 교육상태             | 졸업   | 재학, 수료, 휴학, 중퇴 |
| 취업  | 경제활동상태           | 주로 일하였음, 틈틈이 일하였음, 일시휴직                    | 일하지 않았음        |
| 결혼  | 혼인상태             | 유배우, 사별, 이혼                                | 미혼             |
| 부모됨 | (여성) 출산 여부       | 있음   | 없음             |
|     | (남성) 혼인상태 & 아동보육 | 유배우, 사별, 이혼 & 초등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              | 그 외인 경우        |

4가지 변수 중 부모됨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교육, 실업과 재취업, 이혼과 같이 가역성이 존재한다. 특히 취업은 생애과정에 걸쳐 졸업이나 결혼보다 변동성이 비교적 더 크다. 따라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경제활동상태를 통해 취업으로의 이행, 즉 첫 취업 경험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가족형성에 따라 노동경력이 큰 영향을 받는 청년여성의 경우 현재 미취업 상태는 첫 취업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력 단절을 의미할 수 있다.<sup>3)</sup> 이렇듯 생애 사건의 가역성을 횡단자료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면서<sup>4)</sup>, 경제활동상태가 ‘주로 일하였음’, ‘틈틈이 일하였음’, ‘일시휴직’인 경우를 취업 경험이 있음을 의미하는 취업 변수로 간주한다.

결혼 변수는 혼인상태가 ‘미혼’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결혼 경험이 있는 ‘유배우, 사별, 이혼’인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자녀 출생 여부에 관한 변수의 경우, 선행연구(남춘호·남궁명희, 2012; Fussell, 2005)에서는 분석에 활용한

2) 분석대상이 무학인 비율은 1990년 0.5%, 2005년 0.2%, 2020년 0.0%였다.

3) Jackson과 Berkowitz(2005)는 사회적 역할 획득뿐만 아니라 상실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생애사건의 가역성을 탈근대적 성인기 이행에 대한 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실제 측정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 결과 가장 보편적인 취업-결혼-출산이라는 성인기 이행 패턴은 ‘남성적’ 생애과정으로, 실업이라는 역할 상실을 고려할 경우 남성과 동일하게 분류되어 간과되었던 취업-결혼-실업-출산이라는 ‘여성적’ 생애과정이 드러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4) 생애 사건의 가역성을 분석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횡단자료를 활용한 가상코호트 분석에서 다루기에는 제약이 있었다. 예를 들어, 취업의 가역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는 ‘결혼 전 취업 여부’와 ‘경력단절’ 조사항목은 2015년부터 도입되었고, 결혼의 가역성도 20-30대 연령의 특성상 세 시기의 사별과 이혼 각각의 비율이 1% 내외로 높지 않았다.

인구센서스 자료에 여성이 응답하는 출산 여부 조사문항만 있고 남성에 대한 조사문항은 없기 때문에 여성의 ‘출산(fertility)’에 국한해서 분석했다. 그러나 여성의 생식력의 관점에서 출생(childbirth)을 바라보는 것에 비판적인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남성의 정보를 추론하여 성별과 무관하게 ‘부모됨(parentthood)’ 변수를 구성한다.<sup>5)</sup> 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 단위 자료를 가구 단위 자료로 변환하여 아동보육 문항을 통해 가구원에 관한 정보를 유추하고, 그것을 다시 개인 단위 자료에서 혼인상태 문항과 조합하여 기혼남성이면서 초등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로 남성의 부모됨 여부를 추론한다.<sup>6)</sup>

분석방법은 Modell, Furstenberg & Hershberg(1976)의 고전적인 생애과정 분석법과 엔트로피 지수를 활용한 Fussell(2005)의 분석법을 적용한다(〈표 3〉). 우선 개별 사건의 기본적인 이행 특징을 경험률(prevalence), 이행시점(timing), 이행기간(spread) 지표를 통해 파악한다. 경험률은 청년층이 성인기 이행 과정에 걸쳐 개별 사건을 얼마나 보편적으로 경험하는지를 의미하는데, 출산과 같이 비가역성이 높은 사건의 경우 대체로 39세 때의 이행률이 경험률 개념에 가장 근접한 값이지만 취업과 같이 가역성이 높은 사건의 경우 그 값이 가장 큰 연령 때의 이행률을 사용한다. 이행시점은 각 사건을 경험한 집단의 10%와 50%가 그 사건을 경험했을 때의 연령으로, 이행기간은 각 사건을 경험한 집단 중 상위 10%와 하위 10%를 제외한 중간의 80%가 사건을 경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으로 9분위 이행시점과 1분위 이행시점의 차이로 측정한다.

〈표 3〉 측정 개념 및 지표

| 사건수 | 측정개념·지표             | 내용 설명 및 산출식  |
|-----|---------------------|--|
| 1개  | 경험률<br>(prevalence) | - 해당 집단 중 특정 사건을 경험한 비율<br>- 비가역성이 높은 사건은 39세 때의 이행률을, 가역성이 높은 사건은 그 값이 가장 큰 연령 때의 이행률을 사용 |
|     | 이행 시점<br>(timing)   | - 개별 사건을 경험한 집단 중 10%와 50%가 해당 사건을 경험했을 때의 연령  |
|     | 이행 기간               | - 개별 사건을 경험한 집단 중 상·하위 10%를 제외한 중  |

5) 인구센서스뿐만 아니라 여성만 응답하는 출산 여부 문항을 통해 부모됨 혹은 아동 출생을 조사하는 다른 조사들도 생물학적 출산 조사에서 사회적 부모됨에 대한 조사로 해당 문항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6) 1990년 자료에는 ‘아동보육’ 문항이 없어서 기혼 남성이면서 출산 경험이 있는 청년 여성 가구원이 있는 경우로 부모됨 변수를 구성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로 남성의 부모됨을 정확하게 측정하기에 이러한 제약이 있어서 측정 오류가 포함되었을 수 있다.

| 사건수 | 측정개념·지표                    | 내용 설명 및 산출식  |
|-----|----------------------------|--|
|     | (spread)                   | 간의 80%가 사건을 경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br>- (9분위 이행 시점)-(1분위 이행 시점)  |
| 2개  | 중첩성<br>(age-congruity)     | - 두 사건의 이행 기간이 겹치는 정도<br>$2 \times \frac{(\text{spread}A \text{와 } \text{spread}B \text{의 중첩기간})}{\text{spread}A + \text{spread}B}$  |
|     | 통합성<br>(integration)       | - 두 사건 간 상태들의 연관성의 정도<br>- 파이계수( $-1 \leq \phi \leq 1$ ), $ 1 $ 에 가까울수록 연관성이 높음  |
| 4개  | 엔트로피 지수<br>(entropy index) | - 네 사건을 모두 포괄하는 전체 성인기 이행의 이질성(다양성)의 정도, $0 \leq E \leq 1.204$<br>- $E = \sum_{s=1}^S p_s \log(1/p_s)$ s: 상태의 수, $p_s$ : 상태에 해당되는 비율 |

다음으로 졸업과 취업, 취업과 결혼, 취업과 부모됨, 결혼과 부모됨과 같은 두 사건 간의 관계를 중첩성(age-congruity)과 통합성(integration) 개념을 통해 파악한다. 중첩성은 두 사건의 이행 기간이 겹치는 정도로, 앞서 측정된 두 사건의 이행 기간(spread)의 단순 합에서 연령이 일치하는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합성은 두 사건 간 상태들의 연관성의 정도로, 두 사건의 통합성이 높다(integrated)는 것은 한 사건의 이행을 통해 다른 사건의 이행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취업으로의 이행이 결혼이나 부모됨으로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지 이 개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합성은 명목척도 간 교차분석의 연관 측도 중 2×2 교차표에 사용되는 파이( $\phi$ ) 계수로 측정한다. 파이 값의 범위는  $-1 \leq \phi \leq 1$ 로 0에 가까울수록 연관성이 낮고 1 혹은 -1에 가까울수록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음수는 양수와 정반대의 연관성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네 사건을 모두 포괄하는 전체 성인기 이행의 특징은 상태 조합의 이질성 및 다양성의 정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적합한 측정 지표가 엔트로피 지수(entropy index)이다. 엔트로피 값이 0일 때는 상태 조합이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최대값일 때는 가장 이질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졸업, 취업, 결혼, 부모됨 네 사건을 조합했을 때 가능한 상태 조합의 수는  $16(2^4)$ 가지이고 이를 엔트로피 산출식(〈표 3〉)에 대입하면 최대값은 1.204 정도이다. 또한 가능한 상태 조합 중 빈도가 높은 순으로 핵심 상태 조합의 분포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전체 상태 조합의 엔트로피에 각 사건이 기여한 정도를 확인한다.

이 모든 분석내용은 젠더와 계층의 교차성에 따른 차이에 초점을 맞춰 분석

한다. 이 연구의 주요 설명변수인 계층은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지위 등을 분류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소득수준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해당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은 앞서 졸업 변수의 코딩 방식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30년간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교육수준이 지시하는 계층의 의미가 역사적으로 크게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분석대상을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1990년에서 2020년 사이에 고졸 이하는 74.7%에서 19.7%로, 대학재학 이상은 25.3%에서 80.3%로 그 분포가 극적으로 반전되었다. 즉 소수만이 대학에 진학하던 1990년과 대학교육이 대중화된 2020년에 교육수준이 갖는 계층적 의미는 같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직업지위는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1960년 이후 2010년대 까지 지난 50여 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고(김월화·유홍준, 2013), 실제 분석대상의 직업 분포도 교육수준만큼 크게 변동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직업 대분류별 직업지위 점수를 참고하여(유홍준·김월화, 2006: 167) 계층을 상위직과 하위직으로 분류한다.<sup>7)</sup> 단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직업을 알 수 없는 경우<sup>8)</sup>는 교육수준에 따라 고졸 이하와 대학재학 이상으로 분류한다. 결국 계층 변수는 직업지위를 중심으로 하되 일부는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으로 분류한다. 젠더와 계층에 따른 분석대상의 분포는 <표 4>와 같다.

〈표 4〉 분석 대상

(단위: 명(%))

|    |      | 1990           | 2005           | 2020           |
|----|------|----------------|----------------|----------------|
| 전체 |      | 290,747(100.0) | 271,166(100.0) | 225,708(100.0) |
| 남  | 하위계층 | 94,700(32.6)   | 62,853(23.2)   | 52,637(23.3)   |
|    | 상위계층 | 46,867(16.1)   | 68,673(25.3)   | 61,145(27.1)   |
| 여  | 하위계층 | 111,201(38.2)  | 58,616(21.6)   | 34,745(15.4)   |
|    | 상위계층 | 37,979(13.1)   | 81,024(29.9)   | 77,181(34.2)   |

7)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조사표를 기준으로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를 상위직으로,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직업지위 점수 순으로 작성), '기타'를 하위직으로 분류하였다.

8) 분석대상이 비경활 상태인 비율은 1990년 43.5%, 2005년 40.9%, 2020년 31.8%였다.

## IV. 분석결과

### 1. 단일 사건: 경험률, 이행 시점, 이행 기간

#### 1) 여성 취업의 가역성과 보편적 가족형성의 약화

경험률을 통해 청년층이 개별 사건을 얼마나 보편적으로 경험하는지 살펴보면, 졸업의 경우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젠더 및 계층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값이 90% 이상으로, 청년기 동안 졸업은 거의 모두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열적으로는 2005년과 2020년 사이에 모든 집단의 졸업 경험률이 다소 감소해서 졸업 유예, 대학원 진학, 재교육 등 교육기간 연장에 따른 재학, 수료, 휴학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수 코딩에 관해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층의 취업 경험은 현재 경제 활동상태를 통해 확인하였는데, 취업 경험률은 젠더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취업은 졸업과 마찬가지로 거의 보편적인 경험이었으며, 30대 후반에 취업률이 정점에 다다라서 노동경력이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성의 졸업 경험은 남성과 차이가 없지만 취업률은 남성에 훨씬 못 미쳤고, 20대에 취업률이 정점에 다다라서 30대까지 노동경력을 유지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즉 지난 30년 동안 남성의 취업이 비가역적이라면, 여성의 취업은 가역적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계층별 차이의 변화 추세인데, 1990년부터 2005년까지는 상위계층의 취업률이 하위계층보다 높았다. 하지만 남성은 상위계층의 취업률이 꾸준히 감소(97.3%→89.9%)하고, 여성은 하위계층의 취업률이 가파르게 증가(49.0%→83.6%)하여 2020년에는 이전과는 반대로 하위계층의 취업률이 더 높아졌다.

〈표 5〉 경험률

(단위: %(세))

|    |      | 남성       |          |          | 여성       |          |          |
|----|------|----------|----------|----------|----------|----------|----------|
|    |      | 1990     | 2005     | 2020     | 1990     | 2005     | 2020     |
| 졸업 | 하위계층 | 95.8(32) | 95.9(33) | 88.2     | 98.0(27) | 98.9(33) | 92.8     |
|    | 상위계층 | 96.3(38) | 94.6     | 88.9(35) | 95.8(29) | 95.1(32) | 91.7(31) |
| 취업 | 하위계층 | 94.2(35) | 89.2     | 94.1(36) | 49.0(21) | 59.5(22) | 83.6(29) |
|    | 상위계층 | 97.3     | 92.8(38) | 89.9     | 70.5(24) | 65.7(25) | 72.9(28) |

|     |      | 남성       |          |      | 여성   |      |      |
|-----|------|----------|----------|------|------|------|------|
|     |      | 1990     | 2005     | 2020 | 1990 | 2005 | 2020 |
| 결혼  | 하위계층 | 96.9     | 83.6     | 66.1 | 98.7 | 96.2 | 82.1 |
|     | 상위계층 | 98.7(38) | 92.7     | 72.1 | 95.6 | 93.2 | 82.4 |
| 부모됨 | 하위계층 | 89.2(38) | 69.2(38) | 50.2 | 96.9 | 92.8 | 70.6 |
|     | 상위계층 | 94.0(38) | 82.8     | 58.5 | 94.2 | 89.5 | 74.1 |

주: 39세의 이행률이 가장 큰 경우에는 그 값을 경험률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이행률이 가장 높은 연령의 값을 사용하고 괄호 안에 해당 연령을 표시함.

가족형성과 관계된 결혼과 부모됨 경험률의 변화는 시계열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1990년에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되는 것이 청년층 모두에게 대체로 보편적인 경험이었다. 그 이후부터 결혼과 부모됨 경험률은 꾸준히 감소하였는데, 1990년과 2005년 사이보다 2005년과 2020년 사이의 감소폭이 훨씬 크고<sup>9)</sup>, 여성보다는 남성의 가족형성 경험률이 더 크게 감소했다. 계층별 차이는 젠더에 따라 상반되어서, 남성은 상위계층일 때 여성은 하위계층일 때 가족형성 경험률이 높았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이런 경향이 최근 역전되어서 2020년에는 상위계층의 결혼과 부모됨 경험률이 좀 더 높아졌다.

## 2) 가족형성 시점의 연장

각 사건을 경험한 집단의 10%와 50%가 그 사건을 경험했을 때의 연령을 통해 청년층이 언제 이행을 경험하는지 살펴보면, 경력형성과 관계된 졸업과 취업의 경우 시계열적 추세나 집단별 특성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지는 않았다. 졸업의 경우 세 시기 모두 1분위의 이행 시점은 20대 초중반(21~26세)이었고, 5분위의 이행 시점은 대체로 30대 초반(30~33세)이었다. 취업 시점의 경우 1990년에는 1분위와 5분위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빨랐으나 점차 그 차이가 좁혀져서 2020년에는 남녀 모두 졸업 시점과 유사하게 1분위는 20대 초중반(22~26세)에, 5분위는 30대 초반(30~33세)에 취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2020년 자료의 분석대상은 1981~2001년생으로 평균적인 가족형성 연령을 고려하면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표 6〉 이행 시점

(단위: 세)

|     |    | 1990 |     | 2005 |     | 2020 |     |    |
|-----|----|------|-----|------|-----|------|-----|----|
|     |    | 1분위  | 5분위 | 1분위  | 5분위 | 1분위  | 5분위 |    |
| 졸업  | 남성 | 하위계층 | 22  | 30   | 24  | 32   | 24  | 31 |
|     |    | 상위계층 | 25  | 31   | 26  | 32   | 26  | 32 |
|     | 여성 | 하위계층 | 22  | 30   | 24  | 33   | 23  | 31 |
|     |    | 상위계층 | 21  | 26   | 23  | 30   | 24  | 31 |
| 취업  | 남성 | 하위계층 | 24  | 31   | 24  | 32   | 24  | 31 |
|     |    | 상위계층 | 25  | 31   | 26  | 33   | 26  | 33 |
|     | 여성 | 하위계층 | 21  | 30   | 23  | 33   | 22  | 30 |
|     |    | 상위계층 | 20  | 24   | 23  | 28   | 24  | 30 |
| 결혼  | 남성 | 하위계층 | 27  | 33   | 29  | 35   | 29  | 36 |
|     |    | 상위계층 | 28  | 33   | 30  | 35   | 31  | 36 |
|     | 여성 | 하위계층 | 25  | 31   | 28  | 34   | 28  | 35 |
|     |    | 상위계층 | 25  | 30   | 27  | 33   | 29  | 35 |
| 부모됨 | 남성 | 하위계층 | 28  | 33   | 30  | 35   | 31  | 36 |
|     |    | 상위계층 | 29  | 33   | 31  | 35   | 32  | 37 |
|     | 여성 | 하위계층 | 26  | 32   | 29  | 35   | 29  | 36 |
|     |    | 상위계층 | 26  | 31   | 29  | 34   | 30  | 36 |

가족형성과 관계된 결혼과 부모됨의 경우 시계열적으로 이행 시점이 일관되게 늦춰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행 시점의 연장 폭은 1990년과 2005년 사이가 2~3세로 2005년과 2020년 사이(1~2세)보다 컸다. 앞서 살펴본 경험률을 함께 고려해 보면, 1990년부터 2005년까지는 결혼과 부모됨을 경험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행 시점을 늦추는 경향이 강했다면 2020년에는 가족을 형성하는 집단의 규모 자체가 크게 감소하여 이행 시점의 연장 추세는 상대적으로 덜했다고 볼 수 있다. 집단 특성별 차이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1990년에는 여성의 가족형성 시점이 남성보다 빨랐고 계층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과 2005년 사이 여성의 가족형성 시점이 남성보다 더 많이 늦춰지고 2005년과 2020년 사이 상위계층의 가족형성 시점이 하위계층보다 더 늦춰져서, 2020년에는 젠더 간 차이는 좁혀지고 상위계층의 가족형성 시점이 하위계층보다 늦어지는 경향이 1분위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 3) 상위계층과 남성의 압축적 이행

각 사건을 경험한 집단 중 상위 10%와 하위 10%를 제외한 중간의 80%가 사건을 경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통해 이행이 얼마나 압축적으로 일어나는지 살펴보면, 시계열과 무관하게 네 사건을 모두 아우르는 특징은 하위계층보다는 상위계층일 때, 여성보다는 남성일 때 대체로 한두 살 정도 이행 기간이 적게 소요되어서 상위계층과 남성의 성인기 이행이 보다 압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가족형성과 관계된 결혼과 부모됨의 경우 시계열적으로 이행 기간이 일관되게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지난 30년 간 가족형성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체로 2세 정도 짧아졌다. 특히 가족형성이 가장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상위계층 남성의 이행 기간은 결혼의 경우 1990년에 10년에서 2020년에 8년으로, 부모됨의 경우 같은 기간 9년에서 7년으로 감소했다.

〈표 7〉 이행 기간

(단위: 세)

|     |      | 남    |      |      | 여    |      |      |
|-----|------|------|------|------|------|------|------|
|     |      | 1990 | 2005 | 2020 | 1990 | 2005 | 2020 |
| 졸업  | 하위계층 | 15   | 14   | 14   | 15   | 14   | 15   |
|     | 상위계층 | 12   | 12   | 12   | 13   | 14   | 14   |
| 취업  | 하위계층 | 13   | 14   | 14   | 17   | 15   | 16   |
|     | 상위계층 | 12   | 12   | 12   | 12   | 14   | 14   |
| 결혼  | 하위계층 | 11   | 10   | 10   | 13   | 11   | 11   |
|     | 상위계층 | 10   | 9    | 8    | 12   | 11   | 10   |
| 부모됨 | 하위계층 | 10   | 9    | 8    | 12   | 10   | 10   |
|     | 상위계층 | 9    | 8    | 7    | 11   | 9    | 9    |

## 2. 두 사건 간 관계: 중첩성, 통합성

### 1) 일과 가족형성 간 동시성의 약화

중첩성을 통해 두 사건의 이행이 어느 정도 동시에 일어나는지 살펴보면, 졸업과 취업, 결혼과 부모됨과 같이 경력형성이나 가족형성 각각에 해당되는 두 쌍의 중첩도는 90% 이상으로 이행 기간의 상당 부분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열적 추세나 집단 특성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반면 취

업과 결혼, 취업과 부모됨과 같이 상이한 영역에 속한 두 사건의 중첩도는 각각 동일한 영역에 속한 두 쌍의 사건에 비해 낮았고, 시계열적으로도 상위계층 여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남성은 상위계층일 때, 여성은 하위계층일 때 취업과 가족형성 간의 중첩도가 지난 30년간 일관되게 감소해왔다.

〈표 8〉 중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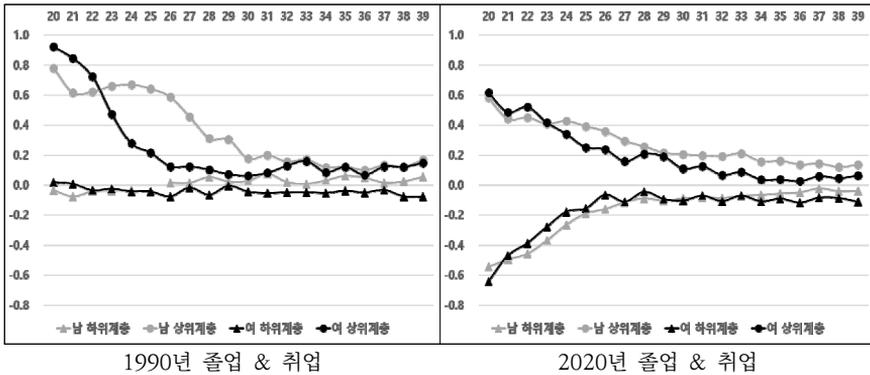
|        |      | 남    |      |      | 여    |      |      |
|--------|------|------|------|------|------|------|------|
|        |      | 1990 | 2005 | 2020 | 1990 | 2005 | 2020 |
| 졸업&취업  | 하위계층 | 0.93 | 1.00 | 1.00 | 0.94 | 0.97 | 0.97 |
|        | 상위계층 | 1.00 | 1.00 | 1.00 | 0.88 | 1.00 | 1.00 |
| 취업&결혼  | 하위계층 | 0.83 | 0.75 | 0.75 | 0.87 | 0.77 | 0.74 |
|        | 상위계층 | 0.82 | 0.76 | 0.70 | 0.58 | 0.80 | 0.75 |
| 취업&부모됨 | 하위계층 | 0.78 | 0.70 | 0.64 | 0.83 | 0.72 | 0.69 |
|        | 상위계층 | 0.76 | 0.70 | 0.63 | 0.52 | 0.70 | 0.70 |
| 결혼&부모됨 | 하위계층 | 0.95 | 0.95 | 0.89 | 0.96 | 0.95 | 0.95 |
|        | 상위계층 | 0.95 | 0.94 | 0.93 | 0.96 | 0.90 | 0.95 |

## 2) 여성의 일-가족 갈등의 지속과 가족형성의 계층화

통합성<sup>10)</sup>을 통해 두 사건 간 상태들의 연관성의 정도를 살펴보면, 졸업과 취업의 경우 젠더보다는 계층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2020년에는 그 양상이 더 선명해졌다. 1990년 하위계층의 졸업과 취업 간 통합성은 대부분의 이행 기간 동안 파이계수 값이 0에 가까워서 졸업과 취업 간의 연관성은 거의 없었다. 즉 하위계층 청년의 경우 졸업 여부에 따라 취업 상태가 크게 좌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위계층의 통합성이 비교적 높았던 것은 2020년 20대 초반에 파이계수가 음의 값을 가지면서 상위계층과 대척점에 있을 때였다. 이것은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거나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률이 더 높았던 경우<sup>11)</sup>로 최근 고졸자의 취업난과 대학생일 때부터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층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0) 교차분석의 카이제곱 검정이 유의수준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에만 파이계수 값을 분석에 포함하였고 그래프에 표시하였다. 그래프에 대한 분석은 연령의 양끝 값이 이상치(outlier)일 수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 전체의 사건별 이행 기간(spread)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각 사건의 이행 기간은 그래프에 주석으로 명시했다.

11) 전문대 이상으로 재학 혹은 휴학인 상태에서 비전일제로 서비스, 판매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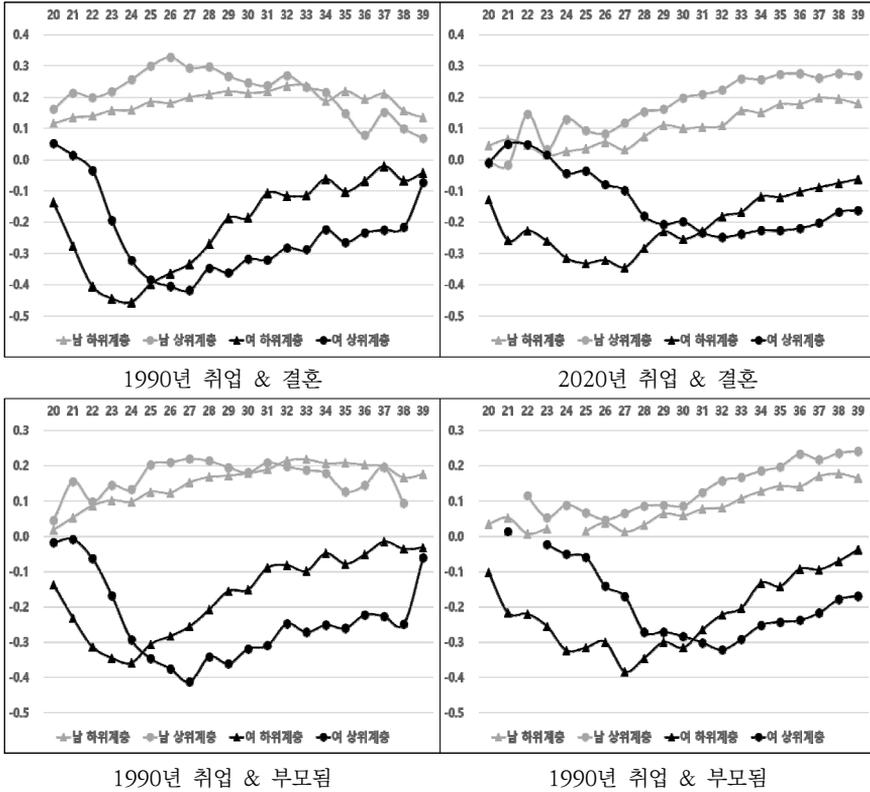


주1: 가로축: 연령, 세로축: 파이값  
 주2: 이행기간: (1990년) 졸업 22~37세, 취업 22~37세 / (2020년) 졸업 24~38세, 취업 24~38세

[그림 1] 통합성: 1990년, 2020년 졸업 & 취업

반면 상위계층의 졸업과 취업 간 통합성은 취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20대에는 비교적 높았다. 1990년 상위계층 여성의 통합성은 20대 초의 짧은 기간 동안만 높았다가 가파르게 감소하는 데 반해 상위계층 남성의 경우 20대의 대부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완만하게 감소했다. 즉 1990년대 상위계층 남성은 청년기의 전반기 동안 졸업과 취업 간의 연관성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훨씬 컸다고 할 수 있다. 2020년에는 상위계층 남녀 간 차이가 1990년 보다는 좁혀졌고, 여성은 20대 후반 정도, 남성은 30대 중반 정도까지 비교적 낮은 수준의 통합성이 완만하게 감소했다. 즉 30년 전 상위계층 남성만큼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상위계층 남녀 모두 적어도 20대에는 졸업과 취업 간에 연관성이 존재했다.

취업과 결혼, 취업과 부모됨은 통합성의 패턴이 거의 일치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취업과 가족형성 간 연관성이 젠더에 따라 상반된다는 것이다. 즉 남성에게 취업과 가족형성이 긍정적, 보완적 관계라면 여성에게 양자는 부정적, 갈등적 관계인 것이다. 남성의 경우 1990년과 2020년 모두 취업과 결혼, 취업과 부모됨 간의 통합성이 0.1~0.2 정도 수준으로 대체로 낮은 편이어서 취업 상태에 따른 가족형성 가능성의 차이가 여성만큼 크지는 않았다. 1990년과 2020년의 차이는 1990년에는 이행 기간 동안 취업과 가족형성 간 통합성이 1990년 거의 변동이 없거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했다면 2020년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했다는 것이다. 즉 30년 전에는 취업 여부와 큰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다면 최근으로 올수록 취업 여부에 따른 가족형성 가능성의 차이가 커졌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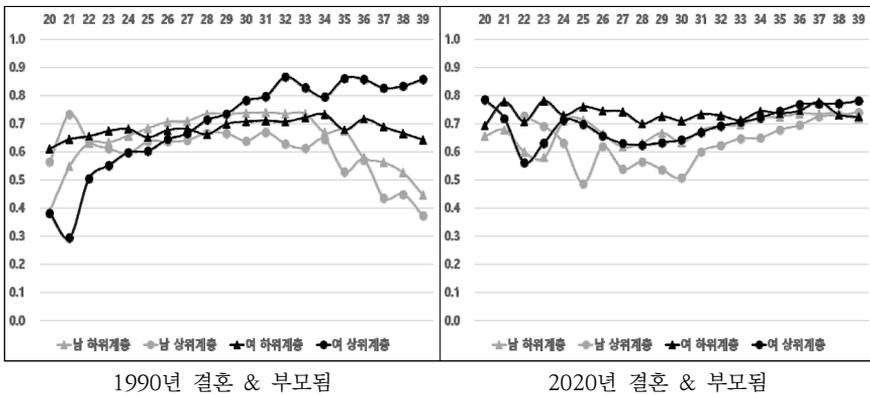
주1: 가로축: 연령, 세로축: 파이값  
 주2: 이행기간: (1990년) 취업 22~37세, 결혼 26~38세, 부모됨 26~38세 / (2020년) 취업 24~38세, 결혼 29~39세, 부모됨 30~39세

[그림 2] 통합성: 1990년, 2020년 (위) 취업 & 결혼 (아래) 취업 & 부모됨

여성의 경우 1990년과 2020년 모두 이행 기간 동안 취업과 결혼, 취업과 부모됨 간 부정적 통합성이 감소하였다. 즉 취업한 경우 가족형성 확률이 더 낮은 관계가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하위계층 여성의 부정적 통합성은 일관되게 감소해서 30대 후반에는 취업과 가족형성의 연관성이 거의 없어진 데 반해, 상위계층 여성의 부정적 통합성은 하위계층 여성보다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었다. 즉 하위계층 여성은 상위계층 여성보다 결혼 혹은 출산 후 (재)취업하는 경향이 커서 취업과 가족형성 간 부정적 연관성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결혼과 부모됨 간 통합성은 분석대상 중 비혼 상태에서 자녀가 있다고 답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파이계수가 0.6~0.7 정도로 앞서 살펴본 세 쌍과 비교하면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990년 집단 특성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지 않아서 하위계층의 결혼과 부모됨의 통합성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까지 0.7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위계층의 경우 20대 중반에 0.6 정도의 수준에서 남성은 30대 초반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감소한 데 반해<sup>12)</sup> 여성은 30대 후반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즉 상위계층 여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30대 후반에는 결혼과 부모됨의 연관성이 감소하여 그 이전에 가족형성을 거의 완료한 것으로 보이고, 상위계층 여성만 30대 후반까지 두 사건 간 연관성이 증가하여 부모됨으로 꾸준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는 계층에 따른 차이가 보다 두드러졌는데, 상위계층의 결혼과 부모됨 간 통합성이 30대에 꾸준히 상승하여 가족형성 시기 및 기간이 늦춰지고 짧아졌지만 부모됨으로의 이행은 청년기의 후반기에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상위계층 여성의 경우 30년 전과 비교하면 결혼과 부모됨의 통합성이 전반적으로 낮는데, 이것은 만혼 및 소자녀화를 넘어 최근으로 올수록 기혼 무자녀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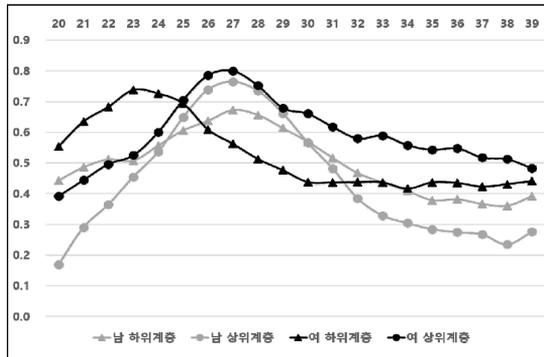
주1: 가로축: 연령, 세로축: 파이값  
 주2: 이행기간: (1990년) 결혼 26~38세, 부모됨 26~38세 / (2020년) 결혼 29~39세, 부모됨 30~39세

[그림 3] 통합성: 1990년, 2020년 결혼 & 부모됨

12) 1990년에 30대 후반 남성의 결혼과 부모됨의 통합성이 감소한 것에 대해 앞서 언급한 남성 부모됨 변수의 한계로 인한 측정 오류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3. 전체 사건 조합의 엔트로피: 교차적 불평등의 복합적·누적적 영향과 성인기 이행 경로의 분화

네 사건을 모두 포괄하는 전체 성인기 이행의 특징을 상태 조합의 이질성 및 다양성의 정도인 엔트로피 지수를 통해 살펴보면, 1990년 20세 때는 하위 계층이 상위계층보다 엔트로피가 크지만 동일 계층 내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엔트로피가 컸다. 즉 집단 특성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기보다는 네 집단 간 이질성의 차이가 큰 편이었다. 해당 시기 핵심 상태 조합의 분포를 살펴보면, 엔트로피가 큰 순서대로 하위계층 여성은 졸업한 경우와 졸업과 취업 모두 한 경우가 각각 40% 정도였고, 하위계층 남성은 전자가 62.7%, 후자가 25.9%였다. 즉 하위계층은 20세 때 이미 85% 정도가 교육을 마친 상태였다. 반면 상위계층은 교육을 마치지 않은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상위계층 여성의 절반 정도가 이에 해당했고 졸업과 취업 모두 한 경우는 43.1%로 하위계층 여성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상위계층 남성은 91.1%가 교육을 마치지 않은 경우로 상태가 매우 동질적이었다. 청년기의 시작점에서 노동시장 진입은 여성이 남성보다 빨랐다.



주: 가로축: 연령, 세로축: 엔트로피값

[그림 4] 1990년 전체 상태 조합의 엔트로피

20대 전반기(20~25세)에 이미 엔트로피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한 하위계층 여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집단의 엔트로피는 20대 전반기에 증가하여 후반기(25~30세)에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했다. 특히 상위계층의 경우 엔트로피의 증가세와 감소세가 급격한 편이었다. 해당 시기 핵심 상태 조합의 분포를 살펴보면, 하위계층 여성은 20대 초에 이미 취업을 중단(41.5%→

13.9%)하고 가족을 형성(3.4%→46.3~61.6%)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큰 상태 변화가 가장 이른 시기에 있었다. 상위계층은 20대 후반기에 취업 상태와 가족형성에 따른 변화가 급격했는데 그 양상은 젠더에 따라 상이했다. 즉 상위계층 남성의 취업률(30.6%→89.7%)과 가족형성(0%→60~75.6%)의 변화가 보여주듯 취업과 가족형성이 동시에 일어난 데 반해, 상위계층 여성은 취업을 중단(50.8%→35.0%)하고 가족형성(10.2%→72.7%)으로 급격히 이행했다. 즉 20대 후반기를 거치면서 젠더에 따라 성인기 이행 경로가 갈리는데, 남성은 네 사건을 모두 이행한 경우가 30대 내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데 반해 여성은 비경황 상태에서 가족을 형성한 경우(●○●●)가 30대 내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것은 졸업 후 취업 경험 없이 가족형성을 한 경우든 취업을 중단하고 가족형성을 한 경우든 가족을 중심으로 조직된 ‘여성적’ 생애경로(Jackson & Berkowitz, 2005)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9〉 1990년 핵심 상태 조합의 분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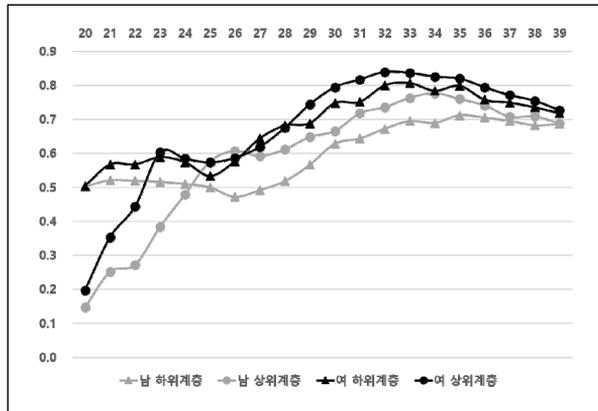
(단위: %)

|            | 20세       | 25세       | 30세       | 35세       | 39세       |
|------------|-----------|-----------|-----------|-----------|-----------|
| 남성<br>하위계층 | ●○○○ 62.7 | ●●○○ 55.7 | ●●●● 58.8 | ●●●● 80.0 | ●●●● 78.5 |
|            | ●●○○ 25.9 | ●○○○ 16.2 | ●●○○ 18.6 | ●●●○ 5.4  | ●●●○ 8.7  |
|            | ○○○○ 6.4  | ●●●● 10.9 | ●●●○ 11.4 | ●●○○ 4.3  | ●○●● 3.7  |
| 남성<br>상위계층 | ○○○○ 91.1 | ○○○○ 41.3 | ●●●● 60.0 | ●●●● 85.9 | ●●●● 85.2 |
|            | ●●○○ 5.6  | ●●○○ 30.6 | ●●●○ 15.6 | ●●●○ 4.7  | ●●●○ 7.3  |
|            | ●○○○ 2.2  | ●○○○ 15.6 | ●●○○ 14.1 | ○●●● 3.8  | ○●●● 3.3  |
| 여성<br>하위계층 | ●○○○ 43.8 | ●○●● 46.3 | ○●●● 70.7 | ○●●● 63.2 | ●○●● 57.7 |
|            | ●●○○ 41.5 | ●○○○ 15.3 | ●●●● 17.7 | ●●●● 28.8 | ●●●● 34.7 |
|            | ●○●○ 3.4  | ●●○○ 13.9 | ○●○○ 3.4  | ○○●● 1.8  | ○●●● 2.6  |
| 여성<br>상위계층 | ○○○○ 52.3 | ●●○○ 50.8 | ○●●● 49.0 | ○●●● 57.6 | ●○●● 54.8 |
|            | ●●○○ 43.1 | ●○○○ 13.2 | ●●●● 23.7 | ●●●● 25.6 | ●●●● 34.7 |
|            | ●○○○ 2.2  | ●○●● 10.2 | ●●○○ 11.3 | ●●○○ 6.3  | ○○●● 4.4  |

주: 전체 상태 조합은 표현의 경제성을 위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졸업-취업-결혼-부모됨 순으로 배치하고, 각 사건의 이행 여부에 따라 ○=미이행, ●=이행으로 기호화하였음.

20대 후반기에 이미 엔트로피가 감소세를 보인 하위계층 여성의 경우 30대에는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데 반해, 나머지 세 집단의 엔트로피는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30대에 꾸준히 감소했다. 해당 시기 핵심 상태 조합의 분포를 살펴보면, 하위계층 여성의 경우 ‘여성적’ 생애경로가 꾸준히 감소(70.7%→57.7%)한 데 반해 네 사건을 모두 이행한 경우가 꾸

준히 증가(17.7%→34.7%)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형성 후 (재)취업이 증가하여 엔트로피의 감소세가 약화된 것이다. 반면 나머지 세 집단은 후발주자들의 가족형성까지 거의 완료되면서 상태 조합의 동질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국 남성은 네 사건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 대다수가 집중된 데 반해, 여성은 ‘여성적’ 생애경로와 네 사건을 모두 이행한 경우로 양분되었기 때문에 39세 때 여성이 남성보다 전체 상태 조합의 이질성이 높았다.



주: 가로축: 연령, 세로축: 엔트로피값

[그림 5] 2020년 전체 상태 조합의 엔트로피

2020년 20세 때 엔트로피는 1990년과 비교했을 때 젠더 차이는 좁혀지고 계층 차이는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체 상태 조합의 이질성은 계층에 따른 차이가 뚜렷해서 젠더와 무관하게 상위계층은 매우 동질적인 상태인 데 비해 하위계층은 그보다 훨씬 이질적인 편이었다. 해당 시기 핵심 상태 조합의 분포를 살펴보면, 상위계층은 남녀 모두 90% 정도가 재학 중인 경우로 상태가 매우 동질적이었다. 반면 하위계층의 경우 엔트로피 지수는 거의 같지만 핵심 상태 조합의 분포는 젠더에 따라 상이해서 남성은 졸업한 경우가 1/2,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한 경우가 1/4 정도였고, 여성은 전자와 후자의 비율이 그 반대였다. 1990년에는 청년기의 시작점에서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보다 높은 것이 특징적이었는데, 2020년에는 하위계층에서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성인기 이행 경로가 부상해서 청년기의 시작점에서 하위계층의 취업률이 상위계층보다 훨씬 높은 것이 특징적이었다.

20대 전반기에도 계층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서 상위계층의 엔트로피는 가파르게 증가한 데 비해 하위계층은 변화 폭이 크지 않았다. 해당 시기 핵심

상태 조합의 분포를 살펴보면, 상위계층은 재학 중인 하나의 상태 조합에 대다수가 집중되어 있다가 졸업과 취업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상위계층 여성의 졸업(4.5%→77.6%)과 취업(11.1%→54.2%) 비율의 변화가 보여주듯 경력형성에 따른 변화가 급격했다. 반면 하위계층의 경우 남성은 취업 비율(50.3%→80.5%)이, 여성은 졸업 비율(46.4%→76.0%)이 증가하여 양자 간 핵심 상태 조합의 분포도 비슷해졌다.

20대 후반기와 30대 전반기에는 네 집단의 엔트로피 모두 대체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여성의 엔트로피가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높았고 하위계층 남성의 엔트로피는 세 집단에 비해 낮아서 양자 간의 간격이 다소 벌어졌다. 해당 시기 핵심 상태 조합의 분포를 살펴보면, 20대 후반기에 상위계층 남성은 경력형성에 따른 변화가 컸고 나머지 세 집단은 가족을 형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1990년의 20대 후반기가 젠더에 따라 성인기 이행 경로가 나뉘는 분기점이었다면, 2020년에는 20대 후반기까지도 남녀 모두 주로 경력형성을 중심으로 상태 변화가 일어났고 ‘여성적’ 생애경로는 여성의 핵심 상태 조합에 포함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도 않았다. 30대 전반기에 ‘여성적’ 생애경로의 비율이 증가하여 여성의 핵심 상태 조합에 포함되었지만 1990년처럼 가장 큰 비중은 아니었다. 또 해당 시기에 남성 간의 계층 차이도 커졌는데 20대 후반기와 30대 전반기에 상위계층 남성의 경력형성과 가족형성에 따른 변화가 하위계층 남성보다 컸기 때문이다.

〈표 10〉 2020년 핵심 상태 조합의 분포 변화

(단위: %)

|            | 20세       | 25세       | 30세       | 35세       | 39세       |
|------------|-----------|-----------|-----------|-----------|-----------|
| 남성<br>하위계층 | ●○○○ 47.5 | ●●○○ 59.4 | ●●○○ 56.5 | ●●○○ 36.1 | ●●●● 42.8 |
|            | ○●○○ 26.2 | ○●○○ 21.1 | ●●○○ 11.4 | ●●●● 30.9 | ●●○○ 26.7 |
|            | ●●○○ 24.1 | ●○○○ 14.2 | ○●○○ 9.9  | ●●○○ 12.9 | ●●○○ 13.0 |
| 남성<br>상위계층 | ○○○○ 91.9 | ○○○○ 42.4 | ●●○○ 51.6 | ●●●● 32.3 | ●●●● 50.8 |
|            | ○●○○ 5.2  | ●●○○ 26.0 | ●○○○ 17.3 | ●●○○ 29.7 | ●●○○ 19.2 |
|            | ●●○○ 2.9  | ●○○○ 21.4 | ●●○○ 11.5 | ●●○○ 16.2 | ●●○○ 10.8 |
| 여성<br>하위계층 | ○●○○ 50.9 | ●●○○ 64.7 | ●●○○ 43.4 | ●●●● 32.6 | ●●●● 45.1 |
|            | ●○○○ 27.8 | ○●○○ 13.0 | ●●●● 15.5 | ●●○○ 22.4 | ○●●● 21.0 |
|            | ●●○○ 18.6 | ●○○○ 11.3 | ●●○○ 12.6 | ●○○● 17.7 | ●●○○ 12.4 |
| 여성<br>상위계층 | ○○○○ 88.5 | ●●○○ 54.2 | ●●○○ 43.1 | ●●●● 27.8 | ●●●● 39.1 |
|            | ○●○○ 6.6  | ●○○○ 23.4 | ●●○○ 12.9 | ●○○● 27.2 | ○●●● 28.7 |
|            | ●●○○ 4.5  | ○○○○ 11.0 | ●○○○ 11.0 | ●○○○ 18.9 | ●●○○ 13.0 |

주: 전체 상태 조합은 표현의 경제성을 위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졸업-취업-결혼-부모됨 순으로 배치하고, 각 사건의 이행 여부에 따라 ○=미이행, ●=이행으로 기호화하였음.

30대 후반기에는 네 집단의 엔트로피 모두 완만한 감소세에 들어섰지만 39세 때 전체 상태 조합의 이질성은 1990년과 비교하면 꽤 높은 수준에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해당 시기 핵심 상태 조합의 분포를 살펴보면, 네 집단 모두 결혼과 출산 비율이 보다 증가해서 네 사건 모두 이행한 경우가 39.1~5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1990년에는 39세에 대다수가 가족을 형성하여 1~2가지의 상태 조합에 집중된 반면 2020년에는 가족 형성 비율이 낮아져서 3~4가지의 상태 조합에 분산되는 경향을 보여서 30년 전보다 전체 상태 조합의 이질성이 높았다.

## V. 결론

본 연구는 청년층이 저출산 문제의 당사자 내지는 책임자로 호명되는 맥락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시점인 현재 청년들의 출산 행위가 정책적 의제로 부상한 것과 관련하여 출산을 넘어 성인기 이행으로, 현시점의 청년 문제를 넘어 청년기의 역사적 성격 변화로 인식의 지평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30년간 20~30대의 성인기 이행의 변화에 대한 역사적 비교를 통해 현재 청년층의 성인기 이행의 특징을 파악했다.

우선 성인기 이행을 구성하는 단일 사건의 변화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졸업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보편적으로 경험한 데 반해 여성의 경우 졸업 경험은 남성과 차이가 없지만 취업 이후 노동경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난 30년간 변함이 없었다. 한편 30년 전에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보편적인 경험이었으나 점차 가족형성 시점을 늦추는 경향이 강해지다가 최근으로 올수록 결혼과 출산을 하는 집단의 규모 자체가 크게 감소해왔다. 현재 청년층의 가족형성의 경우 계층에 따른 차이가 부각되어서 상위계층은 하위계층보다 가족형성 시점이 늦어졌지만 더 많은 비율이 압축적으로 결혼과 부모됨으로 이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두 사건 간 관계의 변화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에게 취업과 가족형성이 긍정적, 보완적 관계라면 여성에게 양자가 부정적, 갈등적 관계라는 것은 지난 30년간 변함이 없었다. 또 여성의 취업과 가족형성 간 부정적 연관성이 가족형성 후 (재)취업 경향으로 청년기의 후반기로 올수록 약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남성의 경우 30년 전에는 취업 여부와 큰 관계없이 보면

적으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다면 최근으로 올수록 취업 여부에 따른 가족 형성 가능성의 격차가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취업과 가족형성 간의 관계 외에도 현재 청년층의 성인기 이행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특징은 하위계층에서 청년기의 출발점부터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증가했다는 것과 상위계층의 가족형성이 청년기의 후반기에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사건을 모두 포괄하는 전체 성인기 이행의 변화 특성을 살펴보면, 청년기의 시작점에서는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젠더 차이는 좁혀지고 계층 차이는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하위계층에서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이행 경로가 부상해서 하위계층의 취업률이 상위계층보다 높은 것이 특징적이었다. 1990년에는 20대 후반기에 남성의 경우 취업과 가족형성이 동시에 일어난 데 반해, 여성은 취업을 중단하고 가족형성으로 급격히 이행했다. 즉 30년 전에는 이 시기가 젠더에 따라 성인기 이행 경로가 나뉘는 분기점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20대 후반기까지도 남녀 모두 주로 경력형성을 중심으로 상태 변화가 일어났고 ‘여성적’ 생애경로는 그 것처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도 않았다. 청년기의 끝점에서는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가족형성 비율이 낮아져서 3~4가지의 상태 조합에 분산되는 경향을 보여 전체 상태 조합의 이질성이 꽤 높은 수준에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청년층의 출산 행위에서 성인기 이행으로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면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 시작되는 젠더 불평등 구조가 장기 지속된 영향에 더해 최근으로 올수록 노동시장 입직 전부터 성인기 이행을 규정하는 계층 불평등 구조의 영향이 강해져 현재 청년층의 삶의 조건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청년기의 출발점에서부터 형성된 계층에 따른 기회구조의 격차와 젠더에 따른 기회구조의 격차가 중첩된 변별적 영향의 누적된 결과가 현재 청년층의 가족형성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출생 관련 통계치가 최저 기록을 갱신하는 상황에서 ‘신혼부부’, ‘신생아’ 등 결혼과 출산에 따른 지위가 갖는 사회적 권리로서의 성격이 점차 더 강화되고 있다. 저출생 대책이 현 상황을 무엇보다 ‘인구 절벽’으로 규정하고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에만 집중한다면 청년층의 교차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30년 전의 20~30대는 남성생계부양자 규범의 지배적 영향 아래 대다수가 성별화된 성인기 이행 경로를 따랐다. 이때 청년기는 성인됨을 규정하는 생애 과업을 일상불란하게 통과하는 시기로, 그 결과 과거의 청년층은 표준적인 가족모델과 성인의 모습으로 동질화되었다. 그러나 젠더와 노동을 둘러싼 규범이 변화하고 젠더와 계층의 교차성에 따른 불평등의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청

년층의 행위양식과 청년기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다. 현재 청년층의 낮은 가족 형성 비율에 따른 성인기 이행 경로의 분화가 단순히 가족형성 시점이 30대 이후로 늦춰지는 이행기의 연장일지, 청년기와 성인기의 경계 자체를 흐리며 성인됨의 의미를 새롭게 재구성해 갈 시발점일지 계속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영·황정미(2013). “‘요요 이행’과 ‘DIY 일대기’: 이행기 청년들의 노동경험과 생애 서사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사회. 제14권 제1호. 215-260.
- 김월화·유홍준(2013). “한국의 직업위세 변화”.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3년 6월. 181-193.
- 김혜경·이순미(2012). “‘개인화’와 ‘위험’: 경제위기 이후 청년층 ‘성인기 이행’의 불확실성과 여성내부의 계층화”. 페미니즘연구. 제12권 제1호. 35-72.
- 남춘호·남궁명희(2012). “생애과정의 탈표준화 경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 성인기 이행의 구조변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제20권 제2호. 91-128.
- 문혜진(2010). “생애과정 관점에 대한 고찰과 적용: 성인으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탐색적 분석”. 사회복지연구. 제41권 제3호. 349-378.
- 오진호(2018). “제3장 가상코호트(Synthetic Cohort)와 실제코호트(Real Cohort)의 기대수명 차이분석”. 통계개발원 2018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I. 88-125.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 유홍준·김월화(2006). “한국 직업지위 지수: 과거와 현재”. 한국사회학. 제40권 제6호. 153-186.
- 은기수·박건·권영인·정수남(2011).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병희·장지연·윤자영·성재민·안선영(2010).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우리나라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실태. 세종: 한국노동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순미(2014). “생애과정의 복합적 탈근대화와 가족화와 개인화의 이중적 과정: 1955-1974년 성인기 이행 배열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8권 제2호. 67-106.
- \_\_\_\_\_(2017). “노동경력과 가족경로 분석을 통해 본 청년기 연장(long youth)의 젠더 차이”. 한국여성학. 제33권 제2호. 181-244.
- 장경섭(2018). 내일의 종언?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서울: 집문당.
- 장미혜·정해숙·마경희·김여진(2011).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선영·함선유·권영지(2023). 여성 고용과 출산: 최근 연구동향과 향후 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Brükner, H. & Mayer, K. U. (2005). De-Standardization of the Life

- Course: What it Might Mean? And If it Means Anything, Whether it Actually Took Place?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9, 27-53.
- Fussell, A. (2005). Measuring the early adult life course in Mexico: An application of the entropy index.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9, 91-122.
- Jackson, P. M. & Berkowitz, A. (2005). The structure of the life course: gender and racioethnic variation in the occurrence and sequencing of role transitions.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9, 55-90.
- Macmillan, R. (2005). The Structure of the Life Course: Classic Issues and Current Controversies.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9, 3-24.
- Mills, M., & Blossfeld, H.-P. (2005). Globalization, uncertainty and the early life course: A theoretical framework In Blossfeld, H.-P., Klijzing, E., Mills, M., & Kurz, K.(Eds.), *Globalization, Uncertainty and Youth in Society*(pp.1-23).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Mills, M., Blossfeld, H.-P., & Klijzing, E. (2005). Becoming an adult in uncertain times: A 14-country comparison of the losers of globalization In Blossfeld, H.-P., Klijzing, E., Mills, M., & Kurz, K.(Eds.), *Globalization, Uncertainty and Youth in Society* (pp.438-458).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Modell, J., Furstenberg, F. F., & Hershberg, T. (1976). Social Change and Transitions to Adulthood in Historical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History*, 1(1), 7-32.
- Ochiai, E. (2011). Unsustainable Societies: The Failure of Familialism in East Asia's Compressed Modernity. *Historical Social Research*, 36(2), 219-245.

## Abstract

## Low-childbirth Era and Intersectional Inequality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for Young Adults

Jin-Hee, Choi\*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mong young adults today through a comparison of the changes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n the 20s and 30s over the past 30 years. For this purpose, the 2% sample data of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in the three periods of 1990, 2005, and 2020 were compared, and the life course analysis and entropy index-based methods (Fussell, 2005; Modell, Furstenberg & Hershberg, 1976 & Fussell, 2005) were applie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Women's educational experience was no different from that of men, but the inability to maintain a working career after employment and the negative and conflictual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and family formation for women have not changed over the past 30 years. Nevertheless, the 'feminine' transition path that was organized around the family has decreased. The impact of class in defin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has grown, with those at the lower end of the spectrum increasingly combining schooling and employment from the start of young adulthood, and those at the upper end of the spectrum delaying family formation due to prolonged career formation, but more compressing the transition to marriage and parenthood. The cumulative results of the differential impact of inequality in the opportunity structure based on class and gender, which has been established since the beginning of one's youth, are being seen in the area of family formation among the current young people. Is the differentiation of transition to adulthood due to the current low rate of family formation among young people simply an extension of the transition period in which family formation is delayed until the 30s or later, or is it the starting point to blur the boundaries between youth and adulthood and to redefine the meaning of adulthood? The possibility is open.

**Keywords :** transition to adulthood, intersectional inequality, gender, class, low childbirth,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

\* Researcher,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